

■ 대기업 LED 조명시장 왜 뛰어나나

35조대 고부가가치 산업 '눈독'

롯데·SK·동부·포스코도 가세

광주 중소 LED업체 80% 타격 우려

삼성과 LG, 롯데, 포스코 등 대기업이 LED(발광다이오드)조명시장에 앞다퉈 진출하면서 LED조명시장이 춘추전국시대를 맞을 전망이다. 특히 이들 대기업은 LED사업 수직계열화의 완성품으로 LED조명을 삼고 있어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광주시와 한국광산업진흥회 등에 따르면 삼성과 LG, 롯데, SK, 동부, 포스코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10여 곳이 LED조명시장에 뛰어들었다. 삼성LED와 LG전자는 각각 1만원 대 LED조명 신제품을 출시하고 판매처를 확대하고 있다. 롯데정보통신도

시장공략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3월 LED조명업체 섬레이를 인수한 SK도 올 하반기 시장진출을 가시화 한다는 계획이다. LED업체 화우테크놀로지 지분을 인수한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하이텍과 동부CNI도 하반기에는 사업계획을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 LED도 조만간 새로운 영업전략을 발표하고 시장공략 강화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들 대기업이 지난 30~40년 이상 중소업체가 지켜온 조명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조명제품의 디지털화를 확대하고 있다. 롯데정보통신도

여기에 LED산업 수직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도 한몫하고 있다. 국내 건물의 형광등 대체 시장은 3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LED산업은 잉곳·웨이퍼 등 소재분야에서 출발해 예피·칩·패키지 등 소재분야, 조명·응용분야로 분류된다.

삼성의 경우 소재분야는 삼성코닝 정밀소재가, 소재분야는 삼성LED와 삼성전기가 맡고 있다. LG는 LG실트론과 LG이노텍이 소재·소자 분야에 진출해 있고, SK, 포스코, 한솔그룹은 각각 SKC솔믹스, 삼성P&A, 한솔테크닉스 등을 통해 소재(잉곳·웨이퍼)를 생산하고 있다.

소재·소자분야는 스마트형 열풍과 LED TV의 성장에 힘입어 크게 성장



높이 더 높이~ 올라라 단오날인 6일 영광 범성포 숲쟁이 공원에서 열린 '제8회 전국그네뛰기 대회'에서 전년도 대회 우승자들이 한복을 곁에 차려입고 '쌍그네' 시범을 보이고 있다. /영광=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저속은행 수사반대 끝장발칙
끝장은 우리가 낸다

어쨌든 불성사남다

광주LED 이제 막 세계시장 넓혀가는데...

광주産 제품 미·일·유럽 등 잇단 수출 MOU

경쟁력 최고... 2015년 광산업 '세계 톱 3' 기대

민선 5기 들어 광주에서 생산된 LED제품들이 미국과 일본, 유럽, 러시아 등지로 잇따라 수출되어 나가면서 '메이드인 광주(Made in gwangju)' LED의 경쟁력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특히 올 들어서는 중국과 유럽 등지에서 광주에 대규모 LED제품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하는 등 거액의 해외 투자유치가 이어져 LED산업이 지역 경제의 강력한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운태 시장을 단장으로 한 광주시 투자유치단은 지난 4일 이탈리아를 방문, 광주지역 TD엔지니어링사의 태양광 LED유도등을 이탈리아 베니스의 수로에 설치하는 수백만달러 규모의 '베니스 빛길 LED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1일에는 역시 TD엔지니어링사의 태양광 LED유도등과 태양광 LED표지등 200만달러 어치를 이탈리아 LAB23사에 수출하기로 하

는 MOU를 체결했다.

광주시는 지난 31일에는 스페인의 대형LED스크린 제조업체인 이마고(I-MAGO)사와 5000만달러 규모의 투자유치협정을 체결했다. 이마고사는 이번 협정에 따라 광주에 LED스크린 제조공장 및 판매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지난 27일, 일본의 LED조명 전문업체인 동화산업과 MOU를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300만 달러 규모의 광주LED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또 지난 4월에는 투자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LED단일품목으로는 세계 최대규모인 51억5000만달러(5조7000억원)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광주시는 이번 수출협약에 따라 광주지역 광(光)산업에서 생산한 LED로 광고관 투광조명등 350만 세트를 제작, 앞으로 3년간 로스앤젤레스(LA)시에 수출하게 된다.

광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광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무역사절단을 러시아에 파견, 광주지역 광산업체와 러시아 에너지회사가 공동으로 250만달러를 투자해 'LED제조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모스크바시가 추진 중인 'LED조명등 교체 시범사업'에 참여, 합작법인 공장에서 생산한 3500만달러 규모의 LED가로등과 실내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2월 강 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중국 베이징 투자환경설명회'에서는 중국의 LED전문기업인 베이징커번광관정 유한공사로부터 3000만달러 규모의 광주공장 건립을 약속받았으며,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라카주가 추진하는 4억달러 규모의 지능형LED가로등 교체사업에 광주에서 생산된 LED를 사용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강운태 시장은 "광주에서 생산된 LED제품들이 해외로 속속 수출되면서 지역LED제품의 경쟁력과 이미지가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다"며 "오는 2015년까지 '광산업 세계 톱(TOP) 3' 진입을 목표로 수출·판매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경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국내 주요기업 LED 수직계열화 현황 (2011.1월 현재, 자료: 한국광산업진흥회)

기업	소재 (잉곳·웨이퍼)	소자		조명 응용	
		예피·칩	패키징	조명	응용
일진	일진디스플레이	일진메타리얼즈	일진반도체	루미리치	
삼성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LED	삼성전기	삼성LED, 삼성전자, 삼성SDI	
LG	LG실트론	LG이노텍		LG전자	LG디스플레이
롯데				롯데정보통신	
SK	SKC솔믹스			SKC	
효성		갤럭시이포토닉스		효성LED 갤럭시이포토닉스	
현대				현대LED 현대정보통신	현대모비스
포스코	삼성P&A			포스코LED	
우리		우리ST	우리LED	우리조명	우리ETI, 뉴옵틱스
금호		더리브	루미아이크로	금호전기	
서울반도체		서울로디바이스	서울반도체	(포스코LED 공동출자)	
알티전자			알티반도체	알티전자	알티뷰텍
한솔	한솔테크닉스 (구.한솔(CD) (크리스탈은 합병))			한솔이팅 (구.한솔(CD))	한솔테크닉스
광전자		광전자 (나리진은 합병)	광전자 (한국고덴스 합병)	광전자	

됐지만 최근들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소재·소자의 대체 수요자 발굴과 LED 산업 수직계열화를 위해 LED조명시장에 대기업들이 적극 진출하고 있다.

특히 이들 대기업 대부분은 건설업사를 계열사로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계열사 사옥이나 생산시설, 자사 브랜드의 아파트를 통해 제품에 대한 시장 반응을 평가하고 기초체력을 다지겠다는 전략이 작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LED조명업체의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 LED업체 중 81.7%가 조명·응용업체인 탓이다.

한국광산업진흥회 관계자는 "중소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LED시장을 시설·투자 규모 등으로 구분해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항해 잘못하면 선장 책임 저축銀 수사 끝까지 수행”

김준규 총장 중수부 폐지 반대

김중창 전 금감원장 오늘 소환

김준규 검찰총장은 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의 대검 중수부 폐지 합의와 관련, "(중수부가) 지금 진행 중인 저속은행 수사를 끝까지 수행해 시민의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열린 긴급 검찰간부회의를 주재한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앞으로 수사에 매진해 수사로 말하겠다. 항해가 잘못되면 선장이 책임지면 되지 배까지 침몰시킬 이유가 없다"며 중수부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는 검찰의 공식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총장은 "중수부 폐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장은 사법개혁 전 체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스스로 성명 발표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정치권의 중수부 수사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상륙작전을

시도하는데 갑자기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게 되면 상륙부대는 어떻게 되겠느냐. 내 생각이기에 어제 오늘 의 상황"이라고 발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중수부에 대해 "부패 수사의 본산으로 역할을 다해왔다. 우리 사회의 부패와 거액의 맞고 일 반인을 소환하거나 서민을 조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따랐지만 작은 부패는 처벌하고 큰 것은 지나쳐야 할지 모르는 미래 상황을 염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총장 발표 직후 박용석 대검차장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정확히 대변하는지 조금 의문이 든다. 국회의 중수부 폐지 방안이 알려지면서 피조사자들이 '어차피 없어진다는데'라는 식의 생각을 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국회 논의에 간접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대검청장 중앙수사부는 부산지 춘은행그룹 추의 구명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중창(63) 전 금융감독원장을 이르면 7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저속은행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비수기 고객사랑행사 이벤트

제주도 관광열차 여행 파격 특가

₩159,000원~

2011 제주도 최대 이슈로 떠오른 '한라산 관광열차와 함께하는 유네스코지정 신제주 관광명소 탐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라산 숲속을 달리는 에코랜드 관광열차와 탐방, 제주의 허파, 원시림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자왓 생태습지체험 국내 최초의 오토마파크 제주올레공원, 가족과 자연을 테마로 한 휴애리자연생활공원 말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청계조란 일대기를 크린 대서사시 더-마파크, 세계 유명 유리공예 전시장 유리의성 돌고래, 올개, 원숭이가 웃음을 선사하는 퍼시픽랜드 동물소, 친환경 녹색정원과 건축학의 미학 휘닉스아일랜드해양공원

왕복항공 2명 이상 출발가능!! 다른 일정, 다른 날짜 출발가능

배타고~비행기타고~버스수송 포함 올레길+제주주요명소 탐방 + 관광열차여행 2박 3일
출발일 매주 수요일에 출발 6월 15, 29, 7월 6, 13, ...

주중 왕복비행기타고 페니는 알뜰 특가 패키지 올레길+제주주요명소 탐방 + 관광열차여행 3박 4일
출발일 매주 월 화요일에 출발 6월 14, 20, 27, 7월 4, 11, ...

주말 가족여행추천상품 알뜰 특가 패키지 올레길+제주주요명소 탐방 + 관광열차여행 3박 4일
출발일 매주 목요일에 출발 6월 9, 16, 23, 30, 7월 7, ...

일반호텔(4~6인실) ₩169,000원 관광호텔(2인실) ₩189,000원 일반호텔(4~6인실) ₩159,000원 관광호텔(2인실) ₩189,000원 일반호텔(4~6인실) ₩179,000원 관광호텔(2인실) ₩219,000원

공통포함사항 : 여행자보험, 숙박, 식사(관광/특급 호텔은 석식 불포함), 일정에 관광요금, ★ 전상품 유가할증료 포함 • 공통불포함사항 : 기사/가이드 팀(1인 ₩10,000원), 선택관광, 준비물(신발, 세면도구) * 우도, 마라도 잠수부 사전예약 가능
선택 관광 : 더마파크(₩15,000원), 서커스월드(₩12,000원), 제트보트(₩25,000원), 삼국지랜드(₩12,000원), 코끼리쇼(₩12,000원) * 매일 45석 항공좌석 - 2명 이상 매일출발가능 * 단독행사시 1인 20,000원 인상됩니다(8명이상부터) * 성인요금과 아동요금 동일합니다.

(주)부민가자투어 예약센터 광주 Tel.(062)382-8201 제주 (064)748-3131